19 July - 16 Augu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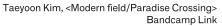
닫힌 문은 방을 외부로부터 단절된 고립의 장소처럼 인식하게 만들지만,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공간은 단순히 비어 있는 수용체가 아니라, 지각과 감각이 살아 움직이는 관계의 장이다. 다시 말해, 공간은 고정된 배경이나 중립적인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형성하는 경험의 방식에 따라 구성되는 지각의 구조이자 의미가 생성되는 장소이다. 휘슬과 샤워의 공동 기획전 <Rooms of Convergence> 전은 지속되는 사회적 긴장과 분열이 개인의 일상과 사적 영역에 어떤 식으로 스며드는지를 반영하며, 지난 5월 김경태, 이연석 작가와 Liste (Basel, 2025)에서 선보인 협업 프로젝트 <In the Living Room>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방'은 단순한 물리적 주거 공간이 아닌 외부의 파장이 내면에 가닿는 접촉면이자, 개인과 사회,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교차하는 은유적 장치로 기능한다.

dpgp78(김지환,민성식), 기예림, 김경태, 김태윤, 매그너스 패터슨 홀너, 서제만, 유키 그레이, 이연석, 이주경, 조이솝,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두 개의 전시 공간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이번 전시는 수렴과 충돌, 고립과 개입이 공존하는 다성적 공간으로서의 '방'을 구현한다. 휘슬의 공간은 다수의 방들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파동처럼 감각과 경험이 분절되면서도 교차하는 다층적 서사를 형성한다. 이곳은 단절과 연결이 모호하게 얽힌 미로처럼, 감각의 파편들이 중첩되고 확장되는 지점이 된다. 반면, 샤워는 하나의 넓은 장 속에서 개별의 경험과 기억들이 자유롭게 흐르고 포개지며, 유동적인 관계망을 생성하는 열린 구조를 지닌다. 이처럼 상반된 두 공간의 구조적 특성은, 전시가 제안하는 '방, 고정된 형식이 아닌, 유예된 상태 속에서 관계 맺고 끊임없이 재편되는 '과정으로서의 공간'의 개념을 사유하는 틀로 제안된다.

About the Artist



Yelim Ki, <The Cell> 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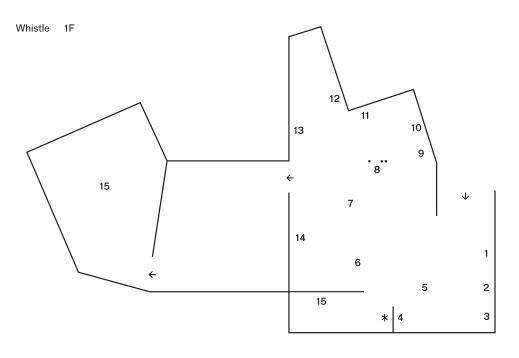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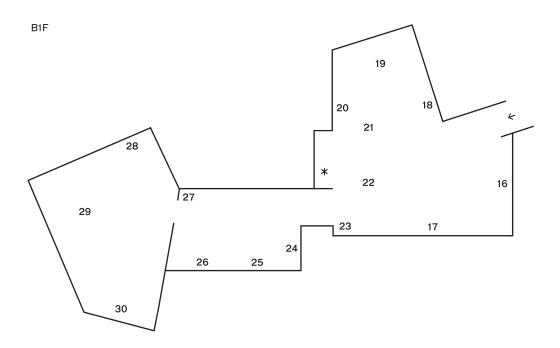
One may perceive a room with a closed door as an isolated space, disconnected from the outer world. However, according to Maurice Merleau-Ponty, space is not simply an empty receptor but a dynamic, living site of perception and sensation. Rather than serving as a static backdrop or neutral stage, space becomes a perceptual structure and a site of meaning-making, shaped by lived experience.

Whistle and SHOWER's co-curated exhibition, *Rooms of Convergence*, reflects on how ongoing social tensions and divisions permeate individual lives and private spaces. This exhibition expands upon their collaborative project *In the Living Room* at Liste (Basel, 2025) which featured works by Kyoungtae Kim and Yonsok Yi. Here, the "room" functions not as a mere physical dwelling, but as a point of contact where external reverberations reach the inner self, and as a metaphorical device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and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fluidly intersect.

The exhibition takes place simultaneously across two gallery spaces, featuring eleven artists: dpgp78 (kimjihwan & minsungshig), Yelim Ki, Kyoungtae Kim, Taeyoon Kim, Magnus Peterson Horner, Jeman Seo, Yuki Gray, Yonsok Yi, Jookyung Lee, and Leesop Cho. It presents the "room" as a polyphonic space where convergence and collision, isolation and intervention coexist. Whistle's space consists of multiple rooms, creating a layered narrative in which sensations and experiences are segmented yet intersect, like interlacing waves. It becomes a maze-like site where disconnection and connection ambiguously intertwine, and fragments of perception overlap and expand. By contrast, Shower offers a single, expansive field where individual experiences and memories flow, overlap, and generate fluid relational networks within an open spatial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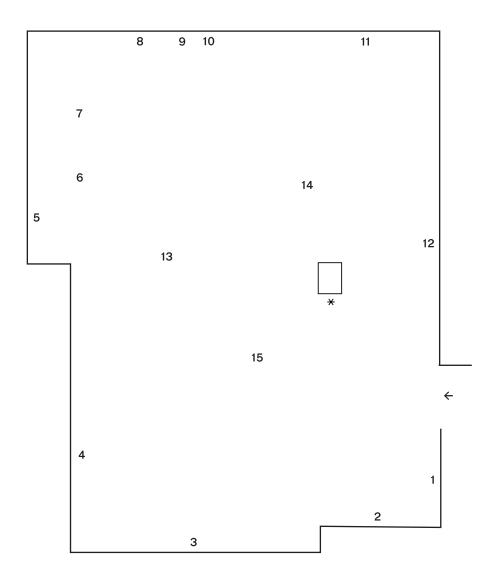
The contrasting structural qualities and spatial dynamics of these two sites serve as a framework for examining the exhibition's proposition of the "room", not as a fixed form, but a space-in-process existing in suspension, forging relationships and undergoing constant reconfiguration.





- 1 Yonsok Yi, R2516 저녁에 이르기 위해서 To arrive at evening, 2022/2023/2025, Oil, resin, phosphorescent pigment on hand-carved wood panel(6 unit composition), Dimensions variable
- 2 Yonsok Yi, R2517 나르는 도둑들 Flying Thieves, 2023/2025, Oil, resin, phosphorescent pigment on hand-carved wood panel(5 unit composition), Dimensions variable
- 3 Yonsok Yi, Fulgurite, 2022, Oil on hand-carved wood panel, 14×14×2.7cm
- 4 Yonsok Yi, Gilded Script (Bonds with Blots), 2025, Oil on paper, 22×16×3cm
- 5 Yuki Gray, From Dust (63.9161°, 22.2119°), 2025, Aluminum, plywood, 100×55×45.5(h)cm
- 6 Yuki Gray, From Dust (42.3535°, -71.0815°), 2025, Aluminum, Plywood, 100×55×45.5(h)cm
- 7 Yuki Gray, From Dust (34.2748°, -120.2666°), 2025, Aluminum, Plywood, 100×55×45.5(h)cm
- Taeyoon Kim, Yesterwind, 2025, 6 channel video, powder coated steel, Raspberry Pi 3, 800×480 pixels, 15 minutes, Dimensions variable
- Taeyoon Kim, Modern field, 2025, Sound, 21m16s
- Taeyoon Kim, Paradise Crossing, 2025, Sound, 14m 24s
- 9 11 Taeyoon Kim, Three-ways, 2025, 3 channel video, painted steel, patterned glass, Raspberry Pi 3, 5 inch screen, 12 minutes, 11×14.5×12cm
- Jookyung Lee, Untitled (North Korean Trash Balloon). Seoul, 2024, Archival pigment print, 28.5×35.5cm
- 13 Magnus Peterson Horner, Riverbank, 2025, Oil on cheese, 43×59cm
- Jeman Seo, The Chorus of Le Sacre, 2025, Oil, oil pastel, graphite on canvas, 160×220cm
- dpgp78, The Concept of Cute, 2025, Acrylic on Styrofoam, Dimensions variable
- * Yuki Gray, City Smokes Series, 2025, Cement, 10×10×5(h)cm

- Jookyung Lee, Untitled (Mountain view). Pyeongchang, Korea, 2023, Archival pigment print, 133×200cm
- 17 Yonsok Yi, Korean Wedding Chest, 2023, Oil and phosphorescent pigment on hand-carved wood panel. 15×15×4.2cm
- Yonsok Yi, Reciter's Tongue (Prop featured in "Ambassadors," a segment of the "Eyes Far Lips" concert in 2023), 2022, Oil and resin on hand-carved wood panel, 14×14×2.7cm
- 19 Leesop Cho, De Profundis: From The Depths, 2025, Shower hose, wire, crystal, glass, zirconia, various beads, 151×51×21cm
- Jookyung Lee, Untitled (Towel). Seoul, 2023, Archival pigment print, 23.5×35.5cm
- Leesop Cho, Autobiography of Red, 2025, Sequins, spray lacquer on various lace, leather strap, 14k plated jewelry, various beads, Dimensions variable
- Leesop Cho, The Language of the Heart's Edge, 2025, Synthetic resin, rubber band, wire, crystal, glass, pearl, imitation pearl, silicone tube, and various string, Dimensions variable
- * Yuki Gray, City Smokes Series, 2025, Cement, 10×10×5(h)cm
- 23 Leesop Cho, Two Different Tears, 2025, Oil on canvas, crystal, 140×21.5cm
- 24 Kyoungtae Kim, Figure O 016, 2024, Archival pigment print, 140×105cm
- Leesop Cho, Heinrich von Ofterdingen: The Blue Flower, 2025, Painted sponge flower, wire, door handle, iron, plaster, Dimensions variable
- 26 Kyoungtae Kim, Figure O 164, 2024, Archival pigment print, 192×108cm
- 27 Yelim Ki, Clock Hand, 2025, Clock parts, LED lamp, sound sensor, CD, plastic, 22×30×9cm
- 28 Magnus Peterson Horner, Untitled (blue), 2025, Oil on soaked canvas, 46×41cm
- 29 Yelim Ki, Slop Trough Blue, 2025, Thermoplastic, LED lamps, Lexan sheets, 45×155×25cm
- 30 Yelim Ki, The Cell, 2025, Two videos alternating with random interval, programmed with MaxMSP, stereo sound, loop



- 1 Kyoungtae Kim, Figure O 126, 2024, Archival pigment print, 140×105cm
- 2 Jookyung Lee, Untitled (Griddle). Pyeongtaek, Korea, 2025, Archival pigment print, 22.5×35.5cm
- dpgp78, go to Whistle after, 2025, Acrylic, maker on wall, Dimensions variable
- 4 Jeman Seo, Test Run in the Machina, 2025, Oil, oil pastel, graphite on canvas, 160×220cm
- 5 Jookyung Lee, Untitled (Watermelon). Seoul, 2023, Archival pigment print, 22.5×35.5cm
- Taeyoon Kim, Studio Hours1, 2025, Single channel video, Powder coated steel, LED screens, custom video player, 104×624 pixels, 117 minutes, 98×30×30cm
- 7 Taeyoon Kim, Studio Hours2, 2025, Single channel video, Powder coated steel, LED screens, custom video player, 104×832 pixels, 113 minutes, 130×30×30cm
- 8 Magnus Peterson Horner, Untitled, 2025, Gouache on canvas, 51×41cm
- 9 Jookyung Lee, Untitled (Suits for sale). Seoul, 2021, Archival pigment print, 27.5×27.5cm
- 10 Magnus Peterson Horner, The Drinker, 2023, Gouache on canvas, 75×100cm
- Jookyung Kee, Untitled (Archer behind curtain). Seoul, 2022, Archival pigment print, 100×150cm
- 12 Yonsok Yi, Kagami-ita, 2025, Oil on black canvas, 73.5×91.5×5cm
- Leesop Cho, The Robber Bride, 2025, Yarn, wire tube, rubber, silicone tube, shower hose, iron bell, iron ball, Christmas tree ball, crystals, various beads an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 14 Leesop Cho, Asphalte, 2025, Various lace, string, pearl, imitation pearl, crystal, silicone tube, shower loaf, zirconia, various beads, sequins an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 15 Yuki Gray, To Dust, 2025, Aluminum, heat sink, 36×40×37cm
- * Yuki Gray, City Smoke Series, 2025 edition, Concrete, 10×10×5cm

dpgp78, 기예림, 김경태, 김태윤, 매그너스 패터슨 홀너, 서제만, 유키 그레이, 이연석, 이주경, 조이솝

19 July - 16 August, 2025

dpgp78(김지환, 민성식)은 미술시장과 제도권의 권위적 구조를 유희적으로 비틀며, 그 경계 바깥에서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콜렉티브다. 이들은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되려 내부에서 경쾌하게 흔들고 전치하는 전략을 통해 예술생태계의 구조적 조건들을 가볍게 교란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귀여운 컨셉>(2025)은 스티로폼에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제작된 103마리의 벌떼 군집으로, 각 개체는 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1인당 1마리만 구입 가능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은 2023년 휘슬에서의 <Let'sing Digging>전에서 '작품을 2+1로 판매한다'는 유통 규칙을 제시했던 방식처럼, 작품의 소유, 가치, 유통 방식에 대한 제도적 작동 조건들을 경쾌하게 전복하는 실천의 연장선에 있다.

기예림은 영상, 조각,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스크린을 매개로 한 영화적 이미지와 물리적 현실 세계의 경계를 탐색한다. 작가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약속하는 영속성과 그 이면의 환영을 비평적으로 짚으며,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내는 감각의 구조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설치 작업은 영상과 인터랙티브 조명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기억과 정체성이 불완전하게 재현되는 순간들을 구현한다. <The Cell>(2025)은 아미쉬 목수와 천사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실사 영상과, 이들을 디지털로 재구성한 3D 모델 영상을 무작위 간격으로 교차해 재생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작업이다. <Clock Hand>(2025)는 시계 장치에 부착 된 조명이 영상의 사운드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동기화된다. 이처럼 자동화된 미장센 속에서 서사는 선형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며, 작가는 이 불일치를 통해 감각과 기억의 균열, 가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경험화한다.

김경태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피사체가 지닌 물리적·시각적 상태의 다층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작가는 물이 떨어지는 찰나의 운동성을 포착함으로써, 맨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순간을 정지된 이미지로 고정시킨다. 낙수의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기와 수 밀리초 단위의 섬광을 발생시키는 스피드 라이트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시간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이번 전시의 사진 연작은 이러한 기술적 개입을 통해 포착한 이미지들로 생성되었으며 이미지 속 물방울은 충돌, 표면 장력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물리적 힘들이 응축된 장면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사진은 극도로 응축된 찰나를 하나의 조각처럼 시각화하여, 순간성과 영속성, 유동성과 고정성이라는 상반된 개념들을 병치시킨다. 이를 통해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감각적 재현을 매개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드러낸다.

김태윤은 영상과 사운드를 기반으로 시간, 움직임, 공간의 상대성을 시각화한다. 그는 일상에서 수집한 시청각 정보를 변형하해 구체적인 현실을 추상의 재료로 전환하고, 이를 비선형적인 시간 구조와 복합적 감각의 층위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간의 연속성을 해체하고, 외부와 주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넘어 내면의 사유와 반향의 리듬을 환기시킨다. 작가의 영상 작업에서 추상은 왜곡을 통해 형성된다. 세 채널 비디오 <Three-ways>(2025)는 교차로를 지나는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간유리가 끼워진 박스 안의 모니터에 재생한 작업이다. 이 물리적 간섭은 익숙한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며 현실로부터 분리시키고, 어긋난 시공간에 위치시킨다. 유리 표면의 음각은 영상의 속 움직임의 속도와 윤곽을 변형해, 평소에는 감지하기 어려운 운동감을 드러낸다

반면, 그의 사운드 작업은 증폭을 통해 추상에 접근한다. 오디오 작업 <Modern Field / Paradise Crossing>(2025)은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앨범으로, 12.3 계엄 전후에 채집된 필드 리코딩을 음악 샘플러를 통해 즉흥적으로 조작·변형한 것이다. 작가는 마이크로 단위의 소리를 분리하고 층위화하여, 일상의 소음을 감각이고조된 사운드 풍경으로 전화시킨다.

매그너스 패터슨 홀너의 작품 속 인물들은 세대적 감수성을 담고 있으나, 그 감수성은 회화라는 매체 자체에 의해 모호하고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된다. 작가는 종종 과거 화가들의 회화 기법과 도구를 모방하여 작품마다 독특한 화풍을 선보이는데, 그 안에는 일관된 유머와 진정성의 정서가 깃들어 있다. 맥도날드 치즈 여섯 조각 위에 그려진 전통적 풍경화 스타일의 유화 <Riverbank>(2025)와 소년의 이미지를 뒤집은 상태에서 그린 뒤 완성된 그림을 다시 거꾸로 뒤집은 <Prinker>(2025)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두 공간에 설치된 <Prinker>(2023)와 <Untitled (Blue)>(2025)는 호너의 소년 시리즈에 중 일부로, 그가 돌보던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소년의 초상화 60~70여점 가운데 두 점이다. 사춘기 직전의 이 소년은 작가가 회화와 맺는 관계를 반영한다. 호너가 자신의 주관성을 숨기듯 표현한 이 회화들은 내면의 어린 시절을 동시에 드러내고 감추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디지털 문화와 이미지가 젊은 화가의 시각 언어에 깊이 각인되는 현실 속에서, 그 의미와 정체성을 낯설게 만들고 불확실성으로 드러내려는 하는 작가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서제만은 개인적 체험과 회상을 바탕으로, 과거에 마주했던 사건과 대상을 중첩하고 재구성하여 회화에 담는다. 일상의 단편들, 사회적 긴장, 개인적 선택의 흔적들은 화면 위에서 선과 색, 질감의 총위로 전환되며 내면의 동요와 의식의 편린을 시각화한다. 작가는 흑연, 색연필, 오일 파스텔, 유화물감 등을 캔버스나 종이에 반복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직관적인 회화 언어를 구축한다. 그의 회화는 내면과 외부 세계가 만나는 경계에서 고립과 몰입,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각적 풍경을 구현하며, 기억의 잔상을 수집하고 재배열하는 회화적 사유로 이어진다. <The Chorus of Le Sacre>(휘슬, 2025)와 <Test Run in the Machina>(샤워, 2025)는 2024년 겨울 계엄 사태와 그 여파 속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플레이한 중세 판타지 RPG 속 마법사의 여정을 투영한 작품이다. 작가는 동시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공연에서 느낀 불안과 기대, 고립과 몰입의 정서를 도시 속 경험과 겹쳐 보며, 현실의 혼란과 상상의 서사가 교차하는 지점을 회화로 풀어내었다. 봄의 제전이 원시적 의식과 희생의 리듬을 통해 집단 감정의 분출을 그려냈듯, 그의 회화 역시 불확실한 시대를 통과하는 개인의 감각과 기억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한다.

19 July - 16 August, 2025

유키 그레이는 조각, 공예, 건축의 경계를 넘나들며 철강, 금속, 목재, 시멘트 등 일상적인 건축 재료를 새로운 용도로 전환해 작품에 활용한다. 그는 공예적 정밀성과 조형적 실험성을 결합함으로써, 관람자가 익숙한 사물과 재료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연작 <City Smokes Series>(2025)는 실리콘 몰드에 시멘트를 주조한 후, 작가가 촬영한 도시의 그래피티 이미지를 표면에 전사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재떨이 형태로 제작된 이 작업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변화하는 도시 풍경의 질감과 스쳐 지나가는 인상을 오브제로 포착하려는 시도다. 그레이는 담배재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기억들을 재떨이라는 일상적 기물에 담아내며, 소멸과 퇴적이 공존하는 풍경을 감각적으로 되살린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들을 함께 녹여 제작한 스툴 형태의 <To Dust>(2025)와, 자연을 시각적 패턴으로 재해석한 테이블 형태의 <From Dust>(2025)는 인공과 자연, 생성과 소멸의 경계를 탐색한다. 두 작업은 보이는 것과 살아내는 것, 기억되는 것 사이를 유영하며 감각의 지형을 구현하고, 재료에 축적된 시간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오브제와 연결되는 조형적 탐구는, 작품에 응축된 잠재된 시간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연석은 회화의 기법에 기반을 두되, 그 형식적 틀을 넘어 회화의 가능성과 경계를 실험한다. 그는 화면을 검게 칠한 뒤, 안료를 덧입히거나 표면을 반복적으로 깎고 다시 덧칠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축한다. 검은 바탕 위의 이미지는 빠르게 그려지고, 곧 사라질 듯 미세한 흔적만을 남긴다. 이 과정은 표면이 균일하게 건조될 때까지 반복되며, 하나의 이미지는 드러나기보다 감춰지고, 쌓이기보다 지워진다. 작가는 단일한 형상을 고정하기보다는 기호가 발생하는 찰나를 추적하고 통제하며, 이로써 회화는 재현의 수단이 아닌, 사라짐과 잔존 사이에 놓인 존재론적 질문의 장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삭제 행위는 <Reciter's Tongue>(2022)에서처럼 화면을 소멸 직전까지 밀어붙이며, 물질적 평면이 붕괴되는 경계에서 부재와 축적이 교차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조각, 채색, 연마의 과정을 거친 화면은 감춰진 기억의 지층으로 변모하고, 이미지는 흐릿하고 반사적인 질감 아래 유예된다. 감상자는 명확히 드러난 형상보다 오히려 숨겨진 흔적에 반응하게 된다. 회화는 더 이상 이미지가 새겨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매체가 아니라, 부정의 행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능동적인 장으로 재구성된다.

이주경은 '평범함'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시선 너머의 여운을 필름 카메라로 담아내는 사진작가이다. 그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직관과 인지를 사진 매체의 고유한 시선으로 포착하며, 피사체의 구체적 묘사와 상징, 빛과 그림자, 그리고 장면에 스며든 감응과 정서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든다. 또한, 지극히 사적인 공간과 대중적이며 공적인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삶의 다층적인 단면들을 고요하게 기록한다. 그간 흑백 인화를 중심으로 실버 젤라틴 프린트를 주 매체로 작업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컬러 필름을 사용해 촬영한 이미지를 스캔하고 대형으로 출력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일상'이라는 주제를 보다 확장된 시선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탐색의 일환이다. 각 작업의 타이틀은 Untitled로 시작되며 <Untitled (North Korean trash balloon). Seoul>(2024)처럼 이미지의 단서와 촬영된 장소가 병기된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서사를 직접 제시하기보다, 장면이 품은 정서적 맥락과 시간의 잔상을 암시함으로써 관람자의 기억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개입될 수 있는 해석의 공간을 열어둔다.

조이솝은 성 정체성과 지향을 존재의 근간으로 삼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경험과 상처, 내면의 흔들림을 조형 언어로 풀어낸다. 작가에게 성애적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작용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작업 전반에 흐르는 퀴어적 서사의 토대를 이루며, 이성애 중심적 질서와 '정상성'에 대한 비판적 질문으로 확장된다. 신체를 주요 조형 요소로 삼는 작가는, 그 파편들을 실리콘 튜브, 크리스탈 유리, 고무, 철사, 레이스, 시퀸, 비즈 등 이질적이고 비견고한 재료들과 엮어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5점의 천장 설치 작업은 작가가 문학과 영화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공중에 떠 있거나 중력에 아슬아슬하게 의존한 형태로 제시된다. 불완전하게 연결된 재료와 느슨한 매듭, 비정형적 구성은 '고정되지 않음'이라는 상태를 시각화하며, 이를 통해 신체와 정체성의 유독성과 불안정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Rooms of Convergence dpgp78, Yelim Ki, Kyoungtae Kim, Taeyoon Kim, Magnus Peterson Horner, Jeman Seo, Yuki Gray, Yonsok Yi, Jookyung Lee, Leesop Cho

19 July - 16 August, 2025

dpgp78 is a collaborative duo consisting of artists kimjihwan and minsungsig. Positioning themselves as playful disrupters working from within the art ecosystem, they aim to probe the existing structures of the art market. Through playful and pointed interventions, their works subvert standard practices of circulation, ownership, and value. dpgp78 presents *Cute Concept* (2025), a swarm of 103 airbrushed styrofoam bees, each available for purchase at 40 dollars. They are sold with a stipulation, limiting purchases at one bee per person. This gesture borrows from retail vocabularies, and continues a query from their 2023 exhibition Letsing digging at Whistle, where works were sold using a "2+1" rule, humorously reconfiguring gallery transactional norms. dpgp78 transforms the act of ownership into a realm of playful negotiation, allowing alternative modes of exchange and engagement to emerge.

Yelim Ki explores the intersections of cinematic images mediated on screen and material reality through video, sculpture, and interactive media. Her practice critically examines the promises and illusions of technological permanence. Yi's installation work TITLE, overlays film with interactive lighting, the synchronized light reacts to the audiovisual elements of video evoke the fragmentation of memory and identity. The precarious moments realized through technological intervention are transformed into unstable totalities collapsing toward abstraction. *The Cell* (2025) presents an automated montage of two videos programmed to alternate at random intervals: one of the actors portraying Amish carpenters and angels, and the other of their digitally reconstructed 3D models. The light elements of *Clock Hand* (2025) are programmed to interact with the sound from the film. Amidst an automated mise-en-scène that interrupts the linear unfolding of the narrative, the disjunction between the digital and the real becomes more pronounced.

Kyoungtae Kim explores the complexity of the physical and visual states of his subjects through the medium of photography. The movements imperceptible to the naked eye are fixed as still images by capturing the moment of a falling droplet of water. He uses tools such as devices that precisely controls the flow of falling water, along with a speed light that emits a flash lasting only a fraction of a millisecond, to visualize these otherwise invisible fragments of time. The photographic series in the exhibition are generated through such technical interventions. The droplet in each image embodies unseen physical forces such as impact and surface tension. Each image renders a hyper-condensed moment as though it were a sculptural object, bringing forth opposing concepts such as transience and permanence, fluidity and stillness in juxtaposition. Through this, the artist reveals how the medium of photography, through its sensory representation, opens up new possibilities of perception.

Taeyoon Kim visualizes the relativity of time, movement, and space through video and sound. In his transformations of the audiovisual materials collected from his everyday life, he turns reality into informational units for abstraction. Kim reconstructs these fragments into nonlinear structures and layered sensory experiences. Through these processes, he dismantles the continuity of time and evokes rhythms of inner dialogue and contemplation that reach beyond the immediacy of a direct, physical perception of the world. In his video work, abstraction is formed through distortion. The three-channel video Three-ways (2025) captures and edits the movements of pedestrians and vehicles passing through an intersection, playing the footage on monitors encased in a frosted glass fitted box. The embossed patterns on the glass surface alters the speed and shadows of the movement within the video, rendering its motions difficult to decipher. This physical intervention blurs the familiar scene, distances reality and the situates it in a disjointed space-time. In contrast, his sound work approaches abstraction through amplification. The audio work Modern Field / Paradise Crossing (2025) is a two-track album composed from field recordings gathered before and after December 3, the start of the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crisis. These logs are then improvised on, and transformed through audio sampling. By isolating and layering sounds at the micro level, the artist turns everyday noise into heightened, immersive soundscapes.

Magnus Peterson Horner's subjects have a certain particularity—a generational sensibility to them that is rendered obscure and general by the medium of painting itself. Horner's paintings are each distinctly painted often in different reinterpretations of the compositional styles of past painters while maintaining Horner's underlying sense of humor and sincerity. *Riverbank* (2025), a traditional landscape oil painting on six pieces of McDonald's cheese, and *Drinker* (2023) with which Horner used a method of painting from a flipped image of the boy, then flipping the painting upside down, both reveal such a sensibility. *Drinker* (2023) and *Untitled (Blue)* (2025), respectively on view at SHOWER and Whistle, are two works from the boy painting series consisting of 60-70 portraits of a blonde-haired blue-eyed boy that Horner babysat. The boy at the brink of adolescence mirrors Horner's relationship to painting. Horner's subjectivity expressed through his works reveals itself with a certain haze, like the precariousness of teenhood, both exposing and burying a part of his inner child. The impressions of the digital culture and its images engrained into the visual language of a young painter attempts to defamiliarize itself from the very thing it is supposed to be and mean, or revealed with a kind of uncertainty.

Rooms of Convergence dpgp78, Yelim Ki, Kyoungtae Kim, Taeyoon Kim, Magnus Peterson Horner, Jeman Seo, Yuki Gray, Yonsok Yi, Jookyung Lee, Leesop Cho

19 July - 16 August, 2025

Jeman Seo's paintings layers and reconstructs personal experiences and recollections of past events. Fragments of daily life, social tensions, and traces of personal choices are transformed on the canvas into strata of lines, colors, and textures, visualizing inner turbulence and fragments of consciousness. Working with graphite, colored pencil, oil pastel, and oil paint on canvas or paper, Seo builds an intuitive visual language through repetitive layering and accumulation. His works evoke sensory landscapes at the threshold where the inner and outer worlds converge, interweaving the sense of anxiety and anticipation unfolding as a painterly meditation that gathers and reorders the lingering traces of memory. The Chorus of Le Sacre (Whistle, 2025) and Test Run in the Machina (SHOWER, 2025) both depart from the artist's experiences during and in the aftermath of the martial law crisis in the winter of 2024, reflected through the imagined journey of a wizard character from a medieval fantasy RPG played during that time. Seo simultaneously overlays the sense of anxiety and anticipation, isolation and immersion evoked when watching Stravinsky's The Rite of Spring with his experiences in the city, translating the intersection of real-world and imagined narrative into painting. Just as The Rite of Spring portrayed the outburst of collective emotion through the rhythms of primal rituals and sacrifice, the paintings intuitively visualize the sensations and memories of an individual traversing a time of unrest.

Yuki Gray works across sculpture, craft, and architecture, repurposing everyday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steel, metal, wood, and cement into new forms. By combining craft-like precision with sculptural experimentation, he invites viewers to rediscover the potential of ordinary objects. *City Smokes Series* (2025) involves casting cement into silicone molds, onto which photographs of urban graffiti taken by the artist from different cities are transferred. Shaped like ashtrays, these works go beyond their functional form to capture the fleeting textures and impressions of the changing cityscape. In preserving memories that are ephemeral like cigarette ash, within everyday objects, Gray evokes a sensory landscape of disappearance and sedimentation in daily life. *To Dust* (2025), a stool created by melting together of residual debris from the fabrication process, and *From Dust* (2025), a table that reinterprets images of nature into flattened visual patterns, both explore the boundaries between the artificial and natural, formation and erosion. These pieces float between what is seen, experienced, and remembered, mapping a sensorial terrain revealing the temporality embedded in materials. His sculptural inquiry into object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reactivate the latent time condensed within the work.

Yonsok Yi's practice is rooted in painting techniques, while pushing against the limitations of the medium beyond its formal framework. His process begins on a black canvas, upon which pigments are added, scraped, and reapplied in cycles. Images emerge swiftly atop the dark surface, only to fade almost immediately, leaving behind faint traces. This repetitive layering and

effacing continues until the surface dries evenly, on which an image is concealed more than revealed, receding more than erected. Yi controls the moment when signs and symbolism emerge and restrains them, thus taking up painting not as a tool of representation, but a site of an ontological inquiry into that which decays and remains. This act of erasure is especially pronounced in works such as *Reciter's Tongue* (2022), where the painted surface is pushed to a physical dissolution. The canvas, subjected to carving, tinting, and abrasion, becomes a layered stratum of memory. Images retained beneath hazy, reflective textures, prompts the viewer to engage less with what is visibly rendered and more with what is obscured. In Lee's work, painting is no longer a passive support awaiting inscription, but an active field where acts of negation are ceaselessly at play.

Jookyung Lee explores the notion of ordinariness by using film photography to capture the lingering resonance beyond the surface of everyday moments. Utilizing the uniquely instinctive and nonverbal language specific to photography, Lee's gaze moves between representation and symbolism, light and shadow, and affect embedded within scenes. Moving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aces, Lee's work quietly documents the layered textures of life. Having worked primarily with black-and-white silver gelatin prints, Lee presents color films, scanned, and printed in large scale for the first time in this exhibition. This technical shift signals an expanded exploration of the everyday through a broader visual language. The title of each piece begins with Untitled, followed by clues about the subject and place, as in *Untitled (North Korean trash balloon)*. Seoul (2024). Rather than offering a fixed narrative, this titling approach opens a space for interpretation, where the emotional tone and temporal residue of each picture invite viewers to engage their own memories and feelings.

Leesop Cho's sense of self is grounded by his gender identity and orientation. He translates the experiences, wounds, and emotional turbulence that stem from these foundations into a sculptural language. For Cho, erotic love is not merely an exchange of emotions, but a primal force that operates across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on-human, living and non-living. This understanding underpins the queer narratives that run throughout his work and expands into a critical interrogation of heteronormative order and the idea of normativity. Using the body as a central sculptural element, Cho assembles fragmented forms with fragile and incongruous materials such as silicone tubing, crystal glass, rubber, wire, lace, sequins, and beads. The five hanging works in this exhibition inspired by literature and film, appear to float in the air or hang precariously under the pull of gravity. Their loosely knotted, irregular compositions and incomplete connections visualize an unfixed state, metaphorically expressing the fluidity and instability of the body and identity.